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을 탐구하다'

갑사 시 콘서트

2017. 08. 21

정윤상, 조민석, 윤준하, 이승현

지도교사 : 김성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갑사 시 콘서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211 윤준하, 1212 이승헌, 2211 정윤상, 2212 조민석

1. 탐사의 필요성

가. 주제 선정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유적이 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불교에 관련된 사찰, 불탑과 같은 유물이 많은 편이다. 해인사, 불국사, 석굴암과 같이 웅장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불교 유적들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불교 유적들이다.

인문자연탐사를 준비하면서 계룡산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 갑사를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절이 왜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갑사를 보면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편안한 느낌을 받았고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아도 이 절을 만들 때 주위 풍경이 어떠한지 소중하고 꼼꼼하게 고민한 것이 느껴졌다.

자료를 검색하던 중 갑사에 게시는 한 동자 스님이 갑사를 청소하다가 지쳐서 갑사의 한쪽에 있는 큰 소나무에 기대어 주무시고 계시는 사진을 보았다. 어쩌면 우리가 갑사를 보고 푸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은 이유가 갑사가 그 주변의 경관과 어울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갑사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고 갑사의 아름다움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 그러던 중 담당 선생님을 통해 ‘갑사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시를 통하여 우리가 느낀 갑사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보고자 갑사 시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나. 탐구 방법

갑사는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준다. 이러한 갑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보았다. 갑사에 관한 추억을 소설을 통해 표현해 볼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림을 통해 갑사의 아름다움을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또한 갑사를 탐구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갑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갑사를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여 줌으로써 그 자체의 의미를 표현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문학 시간에 보았던 김현 작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킨다. 그것은 소위 '감동' 이라는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다...(중략)...감동이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문학으로부터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고 느끼게 된다.

김현,『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중에서..

시의 제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에게 시는 감동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시를 읽는 과정에서 읽는 이는 시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시인의 생각에 공감하게 된다.

우리는 시의 함축성을 이용하여 갑사와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시에 풀어서 소개함으로써 갑사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시를 써보기로 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갑사에 관한 추억을 간직한 한 조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회상하는 시를 써서 갑사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을 표현해보기로 했다.

2. 탐사 과정

가. 갑사 탐사

탐사 첫날, 갑사를 직접 방문한 뒤 갑사를 눈으로 느끼고 가슴에 담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위의 탐사 경로에서 보이듯이 갑사 출발점에서부터 탐방지원센터를 지나 갑사에 도달한 뒤 위쪽 경로로 대성암을 거쳐 용문폭포까지 탐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절경을 보았고, 사진에 담아내었다.



3. 탐구 결과

가. 시 창작

탐구 결과, 갑사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두 개의 시를 창작하였다.

1)길

길

시조시조

양쪽에 부모님 손을
 꼬옥 잡고 함께 걸어가던 길
 손 위의 뜨거운 군밤을
 호호 불어가며 걸어가던 길
 장난감 하나를 움켜쥐고
 해맑게 웃으며 달려가던 길

길 위의 갑사는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었네
 계룡산 산자락 갑사로 향하는
 어릴 적 추억 속에 다시 걷는 길

내 기억 속의 갑사는
 그때 그 자리에서
 상처받은 나를 치유해주네
 지쳐있는 나를
 지쳐있는 내 몸을
 지쳐있는 내 마음을
 다시 뛰게 해주네

‘길’이라는 시는 어린 시절 갑사에서 보낸 시간과 추억을 간직한 화자가 나이가 든 뒤 갑사에

와서 변하지 않은 갑사를 바라보며 그 때를 회상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내용의 시이다.

2)나무열매

나무열매

시조시조

계룡산 끝자락

나무열매 하나 떨어진다

흙길 따라

데굴데굴 굴러간다

시원한 폭포소리

울창한 나무들

푸르른 연잎

지나서 계속 굴러간다

청명한 목탁소리

단아한 꽃송이

다양한 돌들

지나서 아직 굴러간다

데굴데굴

갑사의 아름다움이 담겨간다

‘나무열매’는 나무열매, 흙길, 폭포소리, 연잎, 나무, 돌 등 갑사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자연물들을 제재로 택하여 갑사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시이다.

4. 결론 및 제언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해 우리는 ‘길’과 ‘나무열매’라는 두 개의 시를 창작하였다. 갑사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녹여낸 이 두 개의 시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우리의 목표대로 갑사의 아름다움을 더욱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추후 활동으로는,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를 보고 사진을 보면서 갑사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는 활동 등이 가능할 것 같으며, ‘시’외의 다른 방법으로 갑사를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5. 활동 후기

정윤상 : 우선 처음 인문자연탐사를 하게 되면서 주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다. 그러던 중 계룡산에 위치한 갑사라는 사찰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른 유명한 사찰에 비해 덜 알려진 갑사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시’라는 문학적 갈래를 통해 갑사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갑사를 직접 방문하여 그 아름다움을 느낀 뒤 이튿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제작하였는데,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된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여러 방법으로 갑사의 아름다움을 알려보고 싶다.

조민석 : 인문자연탐사는 주변의 인문과 자연을 체험하고 조사하며 개선하는 우리학교의 특색있는 활동이다. 조가 구성되고 처음 모였을 때 어떠한 인문적인 내용을 담아야 인문자연탐사의 목적에 맞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며 계룡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보았다. 검색을 하며 만난 사진 속의 계룡산은 아름다운 경치를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갑사와 근처 풍경들은 계룡산이 명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듯 정말 아름다웠다. 다만 계룡산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인문자연탐사 주간 동안 계룡산의 갑사 주변의 풍경을 사진기에 담고 그 풍경에 대한 여러 생각을 시에 담아보았다. 시를 통해 계룡산의 훌륭한 자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이승현 : 이번 인문자연탐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 중에서도 갑사와 그 근처 용문 폭포를 지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감상을 바탕으로 나의 감정을 담은 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이었다.

윤준하 : 이번 인문자연탐사 활동을 통해 어릴 적 가보았던 추억의 장소인 갑사를 다시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추억과 아름다운 계룡산 국립공원과 갑사에 대한 시를 쓰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감성적으로 이러한 풍경과 상황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새롭고 신선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